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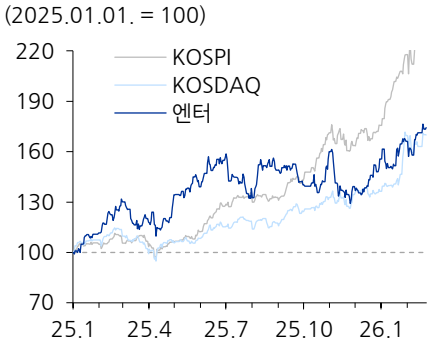
미디어/엔터/레저 위클리

미디어/엔터/레저 이현지 6199 / hjlee1@
RA 고수영 6162 / suek66@

미디어/엔터/레저 Weekly: 2026/02/10 ~ 2026/02/23 2026.02.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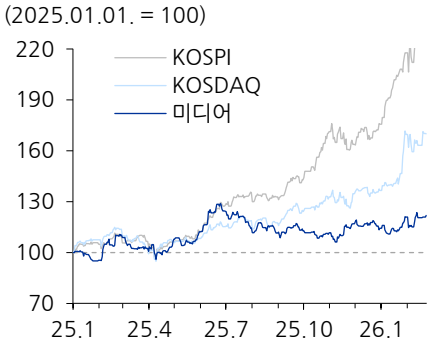
[엔터테인먼트]

- 지난 주 엔터 업종 수익률 전주대비 +2%
- 민희진-하이브 간 255 억원 풋옵션 소송 1 심에서 민희진 승소 판결, 하이브는 항소 제기. 여전히 사법리스크 상존하나 단기 주가는 BTS 컴백에 반응할 것
- 3/20 일 BTS 컴백. 4/9 일 시작 월드투어는 현재 공개된 일정만 82 회차(일본, 중동 추가 예정)로 단일 투어 기준 역대 최대 규모. 공연 및 MD 성장 기대
- 2/27 일 블랙핑크 미니 3 집 발매 예정. 신보 이후 추가 앨콜 공연 발표 기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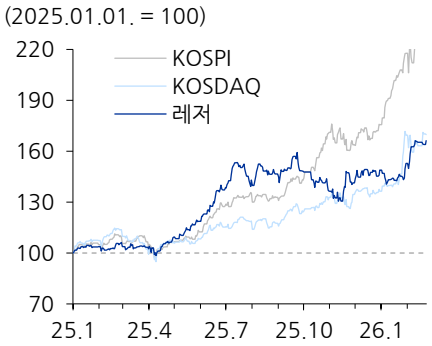
[미디어]

- 지난 주 미디어 업종 수익률 전주대비 +1%
- 2/4 일 개봉한 영화 <왕과 사는 남자> 누적 관객 수 600 만명 돌파, 손익분기 넘어선 상황에서 공동 제작사이자 극장 사업자인 콘텐트리중앙 실적 기대
- 설 연휴 관객수 전년 동기간 대비 58% 증가, 아직 집계 중이나 2 월 국내 박스오피스 980 만명으로 월 관람객 천 만명 돌파 기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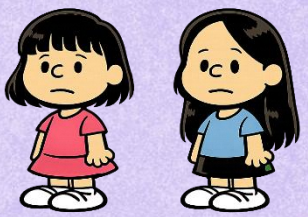
[레저]

- 지난 주 레저 업종 수익률 전주대비 +1%
- 롯데관광개발의 제주 드림타워 춘절 기간 객실점유율 99% 기록, 전년 동기간(72%) 대비 큰폭 상승. 2 월도 카지노 순매출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
- 파라다이스도 춘절 기간 만실에 가까운 온라인 프로모션 예약률 기록하며 객실판매 호조 지속. 3/9 하얏트 리젠시 오픈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

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엔터 위클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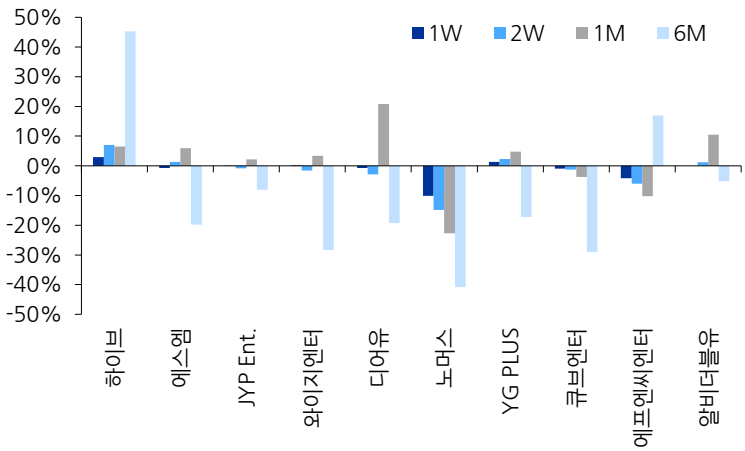
Comment

- 지난 주 엔터 업종 수익률은 전주대비 +2% 기록(vs. KOSPI +6%, KOSDAQ +4%)
- 민희진-하이브 간 255 억원 풋옵션 소송 1 심에서 민희진 승소 판결, 하이브 항소 제기. 여전히 사법리스크 상존하나 단기 주가는 BTS 컴백에 따른 기대감에 반응. BTS 월드투어 일정 발표(1/14) 이후로 하이브 주가 21.3% 상승(2/23 종가 기준)
- 4/9 일부터 시작되는 BTS 월드투어는 당초 79 회에서 북미 공연 3 회 추가되며 82 회 예정. 단일 투어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며, 내년 일본, 중동 추가 예정으로 공연 모객 확대에 따른 공연 및 MD 성장 기대
- 블랙핑크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 유튜브 구독자 1 억명 돌파한 가운데, 2/27 일 미니 3 집 발매 예정. 신보 발매 이후 추가 앵콜 공연 발표 기대하며, 관련 일정 확정될 경우 실적 추정치 조정 예정

주간 주요 뉴스

- (02/11) 캣츠아이, 3 월 '롤라팔루자 남미' 출격
- (02/12) 민희진 '풋옵션 소송' 1 심 승소…법원 "하이브, 255 억 지급해야"
- (02/20) 하이브, '민희진에 255 억 풋옵션 지급' 1 심 패소에 항소
- (02/20) "벌써 대란 조짐"…'BTS 무료 컴백 공연' 23 일 예매 시작
- (02/21)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…블랙핑크, 유튜브 구독자 '1 억 명' 돌파
- (02/21) BTS 추가공연 요청한 멕시코 대통령…이 대통령 답장 공개
- (02/21) 캣츠아이 마농, 활동 잠정 중단 "건강에 집중"
- (02/22) 코르티스, 데뷔 앨범 누적 판매량 192 만장…더블 밀리언셀러 목전
- (02/23) 한한령 빗장에 금 갔다…K 팝·드라마 중국 '귀환' 시작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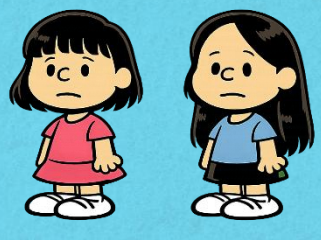
주가 수익률



(pt, 조원) (2/23)	지수, 시가총액	전주대비
KOSPI	5,846	+6.2%
KOSDAQ	1,152	+4.2%
엔터	25.8	+1.8%
하이브	17.3	+2.9%
에스엠	2.7	-0.7%
JYP Ent.	2.5	+0.1%
와이지엔터	1.4	+0.3%
디어유	1.0	-0.7%
노머스	0.2	-10.2%
YG PLUS	0.5	+1.4%
큐브엔터	0.2	-0.9%
에프엔씨엔터	0.1	-4.2%
알비더블유	0.1	+0.0%

자료: Quantiwise, 유진투자증권

미디어 위클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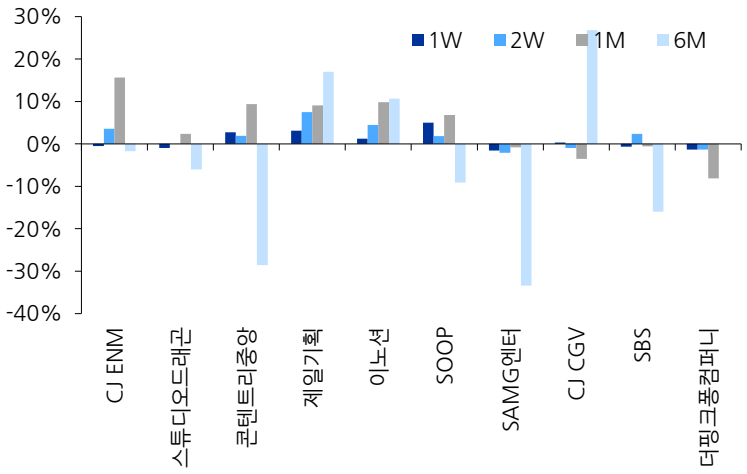
Comment

- 지난 주 미디어 업종 수익률은 전주대비 +1% 기록(vs. KOSPI +6%, KOSDAQ +4%)
- 2/4 일 개봉한 영화 <왕과 사는 남자>(온다윅스·BA 엔터 제작, 쇼박스 배급)가 누적 관객 수 600 만명 돌파하며 장기 흥행 중. 공동제작이긴 하나 이미 손익분기를 넘어선 상황에서 제작사이자 극장 사업자인 콘텐트리중앙 실적 개선 기대
- <왕과 사는 남자>, <휴민트> 등이 흥행을 이끌며 설 연휴 관객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58% 증가. 아직 집계 중이나, 올해 2 월 국내 박스오피스 980 만명으로 월 관람객 천만 명 돌파 기대
- 영화관 굿즈 등이 인기를 끌며 작년 4 분기 메가박스 CPP 4,879 원 기록. 특별관 중심 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극장 내 굿즈 사업 확대되며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기대

주간 주요 뉴스

- (02/11) 스포티파이, 가격 인상에도 사용자 7 억 5000 만명 돌파…분기 사상 최대
- (02/11) SAMG 엔터, 지난해 '매출 1412 억·영업이익 226 억' 역대 최대 실적
- (02/12) 제로베이스원, 5 인조로 재편…YH 엔터 4 인은 독자 활동
- (02/16) 워너브라더스 "파라마운트 협상재개 검토"…넷플릭스 판 깨나
- (02/17) 유튜브·스포티파이에 도전장… 애플, '영상 팟캐스트' 전면전 선언
- (02/20) 2026 설 극장가, 지난해 대비 관객수 58% 증가
- (02/23) '왕과 사는 남자', 개봉 20 일 만에 600 만 돌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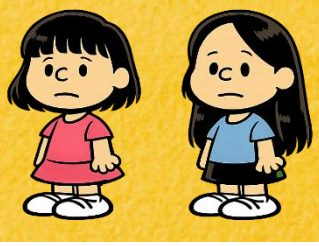
주가 수익률



자료: Quantiwise, 유진투자증권

(pt, 조원) (2/23)	지수, 시가총액	전주대비
KOSPI	5,846	+6.2%
KOSDAQ	1,152	+4.2%
미디어	9.5	+1.1%
CJ ENM	1.7	-0.5%
스튜디오드래곤	1.4	-0.9%
콘텐트리중앙	0.1	+2.8%
제일기획	2.6	+3.2%
이노션	0.8	+1.2%
SOOP	0.8	+5.0%
SAMG 엔터	0.4	-1.6%
CJ CGV	1.0	+0.3%
SBS	0.3	-0.7%
더핑크퐁컴퍼니	0.3	-1.3%

레저 위클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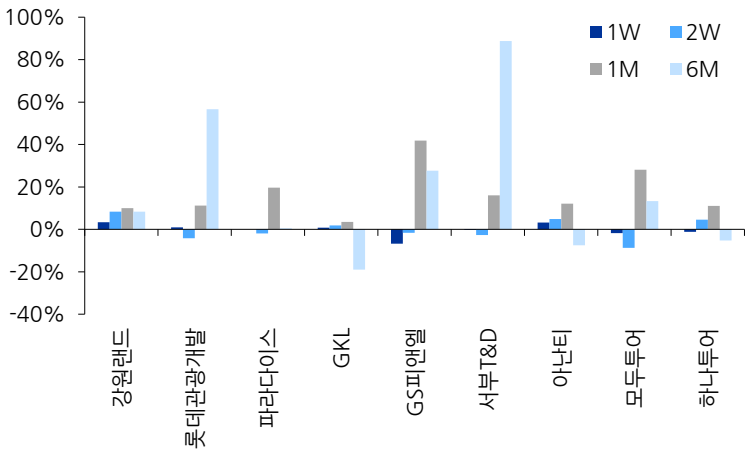
Comment

- 지난 주 레저 업종 수익률은 전주대비 +1% 기록(vs. KOSPI +6%, KOSDAQ +4%)
-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는 춘절 기간 객실점유율 99%(1,600 객실 중 1,590 실 판매) 기록하며 전년 동기간 OCC(72%) 대비 큰폭 상승. 1 월에 이어 2 월도 카지노 순매출 견조한 성장세 지속할 것으로 전망
- 파라다이스 역시 지난 달 트립닷컴, 아고다 등 글로벌 플랫폼과 협업해 진행한 온라인 프로모션에서 춘절 기간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기록하며 객실판매 호조 지속 중. 3/9 일 하얏트 리젠시 오픈 더해지며 인바운드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전망

주간 주요 뉴스

- (02/10) 야놀자, 모두투어 지분 14.4%로 확대…단독 주주 기준 창업주 추월
- (02/14) 중국 춘절 연휴에 한국행 중국인 최대 19 만 명 예상
- (02/15) 춘제 중국인 관광객 몰려온다…카지노업계 '만실' 잇따라
- (02/18) 1 월 日 찾은 중국인 61% 감소…中 '방일 자제령' 여파 지속
- (02/19) "홋카이도서 중국인 피습" 중국, 일본 여행 자제 재차 권고
- (02/19) "심각한 위기 없다"…美 카지노주 반등, 아시아 지역 수요 회복과 고급화 전략 성과
- (02/22) 제주 드림타워, 중국 춘제 기간 객실 1590 실 '만실'…작년보다 27%포인트 급증
- (02/22) 춘절 특수에 웃은 롯데…중화권 관광객 매출 '역대 최대'

주가 수익률



(pt, 조원) (2/23)	지수, 시가총액	전주대비
KOSPI	5,846	+6.2%
KOSDAQ	1,152	+4.2%
레저	13.1	+0.6%
강원랜드	4.2	+3.4%
롯데관광개발	2.0	+1.0%
파라다이스	1.9	+0.0%
GKL	0.8	+0.8%
GS 피앤엘	1.2	-6.8%
서부 T&D	1.1	-0.3%
아난티	0.8	+3.1%
모두투어	0.3	-1.8%
하나투어	0.8	-1.2%

자료: Quantiwise, 유진투자증권